

# 요한복음 말씀산책 | 27회

(요한복음 5:19-23)

2025. 8. 20

(요 5:19-23)

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

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

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

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

(요 5:19-23)

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 
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 
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

## □ 관찰질문

- 본문을 시작하는 접속사, ‘그러므로’가 의미하는 바는?
-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 없다고 하신다. 무슨 뜻인가?
-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대로만 일하신다고 하신다. 무슨 말인가?
-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의 일하심을 보이는 이유를 사랑에 두었다. 그 의미는?
- ‘그보다 더 큰 일’은 무엇인가?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?
-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는 것,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의 의미는?
- 심판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?
- 이 문맥에서 ‘공경’이 의미하는 바는?
-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?
-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?

(요 5:19a)

## 19 **그러므로** 예수께서 **그들에게** 이르시되

- 접속사, '그러므로'가 의미하는 바는?
- '그들'은 누구를 말하는가?

(요 5:16-18)

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 
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

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 
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

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 
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 
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

(요 5:19ab)

19 **그러므로**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**진실로 진실로**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**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**

- '그들'은 누구를 말하는가?
- 접속사, '그러므로'가 의미하는 바는?
- '진실로 진실로'의 행간의 의미는?
- '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'는 것은 불가능을 말하는 것인가?

(요 5:19bc)

19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**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**

19c **(for)**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,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.

20 **(for)**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,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.

21 **(for)**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이다.

22 **(for)**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,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.

23a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

(요 5:19bc)

19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

-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?

(요 5:20a)

20 아버지께서 **아들을 사랑하사**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**다**  
**아들에게 보이시고**

- 아버지의 아들 사랑의 모습은?
- 아버지의 일하시는 방식은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보이시는 것이다.
- 이 보이심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인가?

(창 18:17, 새번역)

17 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,  
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?”

(출 33:11a, 새번역)

11 주님께서는,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, 모세와  
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.

(암 3:7)

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 
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

(요 15:15)

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 
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 
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

(엡 1:3-6)

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

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

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

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

(요 5:20b)

20 또 **그보다 더 큰 일**을 보이사 너희로 **놀랍게 여기게** 하시리라

- '그보다 더 큰 일'에서 그 일은 무엇인가?
- '더 큰 일'은 무엇인가?
- '더 큰 일'의 목적은?

(요 5:21)

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

- ‘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셨다’의 의미는?

##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

1. 사르밧 과부의 아들 (엘리아 선지자, 왕상 17:17-24)
2. 수넴 여인의 아들 (엘리사 선지자, 왕하 4:18-37)
3. 죽은 자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 살아남 (왕하 13:20-21)
4. 나인성 과부의 아들 (예수님, 눅 7:11-17)
5. 야이로의 딸 (예수님, 마 9:18-26)
6. 나사로 (예수님, 요 11:1-44)
7. 예수님의 부활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남 (마 27:51-53)
8. 도르가(다비다) (베드로 사도, 행 9:36-42)
9. 유두고(에우디고) (바울 사도, 행 20:7-12)
10.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

(요 5:21)

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**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**

-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**'살린다'**의 의미는?
- 아들이 **'자기가 원하는 자들을'** 살린다'의 의미는?

(요 17:6, 새번역)

6 나는,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.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,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.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.

- 그들이 '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'는 것은 무슨 뜻인가?

(요 5:22)

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**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**

- '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'의 의미는?
- '아들에게 모든 심판이 있다'는 것의 의미는?

(요 3:18)

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

(요 3:36)

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 
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 
위에 머물러 있느니라

(요 5:23)

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**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**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

- '공경'이란?
- 유대인들은 아버지는 공경했다. 그러나 아들은 공경하지 않았다. 이것이 가능한가?
- 그들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버지는 같은 분이신가?
- 분명한 것은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것이다.

(눅 20:9-16)

9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

10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

11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

12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

13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**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**

(눅 20:9-16)

14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

15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

16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

# 결론

---

“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”

---

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 
영원히 죽은 자가 생명을 갖는 것이 비교가 되는가?

그런데 유대인은 무엇에 놀라워 했으며,  
오늘 우리는 무엇을 반가워 하는가?

**'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'**

---

**'심판'은 무엇인가?**

**세상을 사랑하고 의존하던 자들이  
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게 되는 시간이  
성도의 삶이다.**

**따라서 성도들은 날마다 세상을 심판한다.**

# 질의응답

---